

THE PRESIDENT: Good evening. Today, our fellow citizens, our way of life, our very freedom came under attack in a series of deliberate and deadly terrorist acts. The victims were in airplanes, or in their offices; secretaries, businessmen and women, military and federal workers; moms and dads, friends and neighbors. Thousands of lives were suddenly ended by evil, despicable acts of terror.

The pictures of airplanes flying into buildings, fires burning, huge structures collapsing, have filled us with disbelief, terrible sadness, and a quiet, unyielding anger. These acts of mass murder were intended to frighten our nation into chaos and retreat. But they have failed; our country is strong.

A great people has been moved to defend a great nation. Terrorist attacks can shake the foundations of our biggest buildings, but they cannot touch the foundation of America. These acts shattered steel, but they cannot dent the steel of American resolve.

America was targeted for attack because we're the brightest beacon for freedom and opportunity in the world. And no one will keep that light from shining.

Today, our nation saw evil, the very worst of human nature. And we responded with the best of America -- with the daring of our rescue workers, with the caring for strangers and neighbors who came to give blood and help in any way they could.

Immediately following the first attack, I implemented our government's emergency response plans. Our military is powerful, and it's prepared. Our emergency teams are working in New York City and Washington, D.C. to help with local rescue efforts.

Our first priority is to get help to those who have been injured, and to take every precaution to protect our citizens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from further attacks.

The functions of our government continue without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생활방식과, 우리의 자유가 치밀하게 계획된 치명적인 일련의 테러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테러공격으로 여객기를 타고 있던 국민들과 건물 내 사무실에 있던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비서, 사업가, 여성, 군인, 연방정부 공무원 등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웃이 희생되었습니다. 사악하고 비열한 테러행위로 수 천 명의 국민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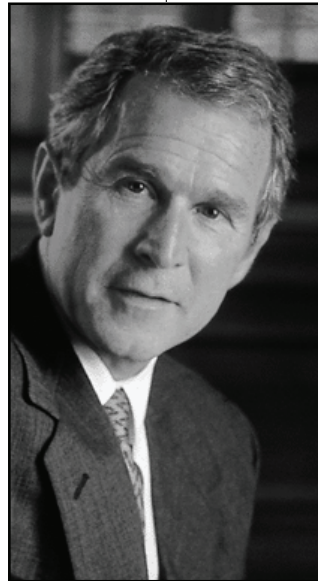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하고, 불길이 솟고,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으며,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과 함께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대량살상 행위는 우리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켜 미국을 혼란과 퇴보로 몰아 넣을 의도로 자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분자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미국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위대한 국민이 나섰습니다. 테러공격으로 가장 큰 건물의 기초를 흔들 수는 있을지언정, 미국의 기초에는 손조차 댈 수 없습니다. 테러공격으로 강철 구조물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을지언정, 미국인의 강철 같은 의지에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미국이 테러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밝은 자유와 기회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등대의 불빛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나쁜 악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악에 대해 미국은 구조대원의 용감한 활약과 헌혈과 여타 지원활동으로 나타난 이웃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애정 등 최고의 선으로 대응했습니다.

제1차 공격 직후 나는 정부의 비상대응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군은 막강한 전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대응팀이 뉴욕 시와 워싱턴 D.C.에서 현지의 구조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부상자를 구호하고 국내외의 미국 국민을 추가 테러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interruption. Federal agencies in Washington which had to be evacuated today are reopening for essential personnel tonight, and will be open for business tomorrow. Our financial institutions remain strong, and the American economy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well.

The search is underway for those who are behind these evil acts. I've directed the full resources of our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communities to find those responsible and to bring them to justice. We will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errorists who committed these acts and those who harbor them.

I appreciate so very much the members of Congress who have joined me in strongly condemning these attacks. And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I thank the many world leaders who have called to offer their condolences and assistance.

America and our friends and allies join with all those who want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 and we stand together to win the war against terrorism. Tonight, I ask for your prayers for all those who grieve, for the children whose worlds have been shattered, for all whose sense of safety and security has been threatened. And I pray they will be comforted by a power greater than any of us, spoken through the ages in Psalm 23: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This is a day when all Americans from every walk of life unite in our resolve for justice and peace. America has stood down enemies before, and we will do so this time. None of us will ever forget this day. Yet, we go forward to defend freedom and all that is good and just in our world.

Thank you. Good night, and God bless America.■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연방정부 부처의 직원들은 오늘은 긴급 대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밤부터 핵심인력이 복귀하게 되며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미국 금융기관의 온전성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미국 경제의 모든 기능도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사악한 테러행위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정보기관과 행정부의 모든 자원을 이 테러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색출하여 응징하는 데 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를 자행한 자들과 테러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응징할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이 테러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데 동참해 준 연방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지원의사를 표명해 준 전세계 수많은 지도자들도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미국과, 그 친구 및 우방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깃들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손을 잡고,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밤, 슬픔에 잠긴 모든 사람들과, 세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고 느끼는 모든 어린이들과, 안전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편 제23장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이들의 아픔을 덜어 주실 것을 나 역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각계각층의 모든 미국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결의로 함께 뭉친 날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적을 물리쳐 왔으며, 이번에도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 국민 어느 누구도 오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자유와, 선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